

道通眞境의 理解

鄭大珍*

目次

I. 머리말	2. 종교의 역사적 한계와 새로운 지평
II. 도통진경의 이론적 기초	IV. 이상세계로서의 도통진경
1. 도통진경의 개념	1. 이상적 인간과 세계일가의 시대
2. 대순종지와 도통진경	2. 물질적 풍요와 자연환경의 이상세계
III. 도통진경의 사상적 필요성	3. 종교와 이념의 통일세계
1. 현실세계의 부조리와 그 극복	V. 맺음말

I. 머리말

구천상제님께서 인세(人世)에 강세(降世)하시어 선포하신 대순진리는 오늘날 종단 대순진리회의 창설로 인해 그 실질적 구현을 맞게 되었다. 상제께서는 이조 말엽에 극도로 악화된 종교적·정치적·사회적 도탄가를 당하여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과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대(前代) 미증유(未曾有)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였으니 여기에 언급된 열여섯자의 종지(宗旨)는 그 사상적 이념을 함축하고 있는 주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지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종교적 목적달성을 위해 설립된 대순진리회는 그 사상적

* 대진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천명(闡明)을 종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의 필자는 앞서 음양합덕(陰陽合德)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에 이르기까지 한 종교인으로서의 이해를 도모한 바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 이르러서는 종지의 궁극적 귀결처(歸結處)라고 할 수 있는 도통진경(道通眞境)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므로써 그 사상적 대체(大體)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익히 논설한 바 있듯이 음양합덕은 후천세계를 이룩하는 하나의 조판원리(組版原理)이며 신인조화는 새로운 도덕질서의 확립을 지향하고 해원상생은 나아가 모든 인간사물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도통진경이라 함은 이상에서 말한 종지의 내용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의 전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즉 진경(眞境)이란 참된 세계를 말하며 이러한 참된 세계란 대순진리의 종교적 법리가 현실적으로 온전히 구현된 세상에 다름아니다. 그렇다면 도통진경이란 대순진리의 종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인간모두가 추구해야만 될 이상사회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상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유구한 역사를 걸쳐 추구해 왔던 인간의 노력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달성은 요원하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천상제께서 선포하신 대순진리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목전(目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자각하게 해주며 나아가 그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계도하는데 신앙인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순진리의 종지(宗旨)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그 사상적 귀결처라고 할 수 있는 도통진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인류의 이상과 종교적 과제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Ⅱ.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이론적 기초

1. 도통진경(道通眞境)의 개념

도통진경에 대한 해석은 실상 종지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앞서 해석한 종지의 내용을 모두 귀결시키는 것이며 그것을 한 데 모아 이룩한 최종 도달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하나의 세계관이며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너도 나도 모두 도통을 해서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이상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먼저 도통(道通)이라 함은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있어서 저마다 살아가는 이치가 다 있는 법인데 이것을 도(道)라고 하고 이를 환히 꿰뚫어 알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사람들 모두가 천지 우주의 모든 이치를 환히 알기 때문에 밝고 바르며 투명한 세상이 되어 어떠한 부정(不正)과 불의(不義)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진경(眞境)이라 함은 그 진(眞)자(字)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일시적이고 가식적(假飾的)인 현상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되며 진정으로 바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상태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역경을 이겨내고 정성을 드리는 과정이 있었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境)이라 함은 하나의 세계를 말하고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도통을 이룩한 뒤에 맞이하는 참되고 밝은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도통진경의 내용에는 위와 같이 도통이라고 하는 경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전체세계 속에 실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현실세계 안에서 아직 도통을 이룩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상황과 그 극복을 위한 종교적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그것이 온전히 실현된 전체 세계의 모습을 구천상제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전경에 보면 「어느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 고 하셨도다.(교운 1장 40절)」 라는 말씀처럼 저마다 진정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역사적으로 도통이라고 하는 경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도통이 인류에게 베풀어지지 않았으므로 수도과정에서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통을 이룰 수 있게끔 구천(九天)의 상제께서 인세에 강세하시게 되었으며 9년간의 천지공사를 통해 그 진정한 경지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상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통출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교운 1장 41절)라고 하여 대두목을 통해 전수되는 도통의 방법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인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종교적 통일 의 경지를 아울러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원대한 이상세계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여 오직 상제를 향한 일심과 수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해 인류에게 무한한 선경(仙境)의 낙원을 예비하였으며 도수(度數)의 진행에 따라 이룩되는 이상세계는 다름아닌 대순종지의 도통진경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도통진경의 의미란 진리로서의 도(道)를 누구나 환히 알게 되어서 전체 세계가 밝고 빛나는 이상세계가 있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2. 대순종지(大巡宗旨)와 도통진경(道通眞境)

대순진리의 종지는 크게 열여섯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도통진경의 네글자는 종지전체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종지의 이해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해원상생이 가리키는 바를 충분히 자각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름아닌 도통진경에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종지에 나타난 도통진경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언급된 종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이해해 보고 나아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곧 도통진경이 됨을 결론적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음양합덕(陰陽合德)의 개념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조판원리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음양이 서로 합해져서 상생(相生)의 덕(德)을 편다는 것으로 여기서 생육(生育)되어져 나오는 모든 만물은 오직 풍요롭기만 하는 이상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때 음과 양은 각각 정음(正陰) 정양(正陽)이며 일음(一陰) 일양(一陽)으로 합해져야 하는데 이는 어느 한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동등(同等) 동권(同權)한 결합을 말하고 있다. 정음 정양이라 함은 음과 양이 서로 그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자기 모습을 확보한 상태를 말하며, 일음 일양이라 함은 음과 양의 비율이 서로 같아서 권리가 동등한 것을 말한다. 그러한 음과 양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서 정음정양과 일음일양으로 조화로운 만남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음양합덕을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 모든 조화가 창출되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은 서로 음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써 자연을 대변하는 근본적인 존재이다. 이 하늘과 땅이 음양합덕이 되면 무한한 사물을 생(生)하게 되고 이는 오직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자연의 풍요로운 환경을 구성한다. 사람도 남녀가 음양합덕으로 만나게 되니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가 영특하고 어여쁘기만 하다. 인간이 필요로 하여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물건도 음양합덕으로 만들어지므로 어떠한 부작용도 없고 해독도 없는 편리함을 지니게 된다. 즉 삼라만상이 모두 음양합덕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나므로 이 세계는 무한한 풍요로움만 존재할 뿐 어떠한 고뇌와 부족함도 느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이와 같은 음양합덕의 세상이 아니라 음양부덕(陰陽不德)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음정양이 아니라 편음편양(偏陰偏陽)으로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세상은 상극(相剋)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원(冤)으로 점철된 진멸(盡滅)의 세상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약육강식(弱肉強食)으로 서로가 이길려고 하며 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원망을 품고 복수하게 되니 살육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식량자원은 부족하고 인간상호간의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 서로를 해칠려고 하니 불안과 공포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에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되었으니 곧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진 후천선경(後天仙境)이 바로 그것

이다. 음양부덕으로 인해 생겨난 참혹한 현실을 천지공사로 인해 원만한 음양합덕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음양합덕이 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대순종지가운데 음양합덕이 가르치고 있는 교의(教義)라고 하겠다.

신인조화는 음양합덕의 기초아래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확고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법이란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 데 기준이 될 만한 윤리 도덕관을 말하며, 그 윤리 도덕적 질서를 인간과 상대한 신(神)이 감시하고 담당하므로써 어느 누구도 부정과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음양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양(陽)이라면 신(神)은 음(陰)이 되는 고로 음양합덕이 된 세상에서는 사람과 신도 곧 합덕이 되어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 때 조화(調化)란 신과 사람이 본래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그 근본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합일적(合一的)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神)이 곧 사람이며 사람이 곧 신(神)이 되는 새로운 존재를 창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마치 그릇에 물이 담기는 것과 같이 사람의 그릇 즉 기국이나 포부등이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신명이 응하여 신인조화(神人調化)가 되고 그 그릇이 크면 큰 대로 큰 신명이 응해서 신인조화가 되니 모두 다 합덕(合德)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음양합덕(陰陽合德)이 되기 때문에 신인조화(神人調化)가 되는 것이다. 후천세상의 풍토를 말한다면 한번 콩을 심어 놓은 자리에는 계속 그 자리에 콩이 나는 것과 같이 큰 배가 있으면 거기에 계속 큰 배만 열고 큰 사과가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큰 사과만 연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또한 사람의 씨종자가 되어서 한번 신인조화가 되었으면 그 아들 딸도 모두 그 크기대로 조화(調化)가 되어 탄생한다. 따라서 신명(神明)의 조화를 인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며 4차원의 시공간을 마음대로 누리게 된다. 사람은 모든 천지의 이치를 환히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볼 수 없었던 세계도 마음대로 환히 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만큼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세계이므로 그 세계에는 새로운 윤리 도덕관이 출현해서 인간사회의 규율을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누구나 그 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또 위배할 수도 없는 세상이므로 새로운 윤리도덕이 확고하게 정착된다. 어떤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아쉬운 것도 없어서 원

하는 바가 다 되게끔 해준다. 여기에 인간은 극치의 존엄성을 지니게 되니 이를 이룸하여 인존(人尊)이라고 한다. 이는 곧 신인조화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신인조화의 종지는 신명과 인간이 서로 합일(合一)해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사상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이념에 이르게 되면 이는 후천에 있어서 하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앞서 이야기한 풍요로운 자연적 환경과 신명의 무궁무진한 조화로 인해 인간이 바라는 소원이 모두 다 성취되는 상태를 말하고 나아가 오직 서로를 잘되게끔만 하는 상생의 덕을 펼쳐나가는 것이 곧 해원상생의 생활상이 된다. 해원의 반대는 서로 원(冤)을 맺고 대립하는 것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는 서로를 이기고자 하는 상극의 원리가 지배해 온 세상이므로 서로가 원(冤)을 맺고 감정이 대립되어 와서 진멸(盡滅)의 지경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파멸의 지경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직접 강세하시게 되었던 것이며, 9년간의 천지공사는 바로 이러한 지경의 원인이 된 원(冤)을 해소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해원(解冤)이란 상대로 인해 생긴 원망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바라는 바 소원까지도 모두 다 이루게끔 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를 좋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안보면 그립고 동경하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잘되게끔 해주니 이것이 바로 상생(相生)의 이념이 실현된 것이다. 이 상생(相生)의 뜻은 공생(共生)과도 달라서 제한된 환경하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도 서로 참고 살아가는 것이 공생이라면 상생은 오직 상대가 있어야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상대가 잘되어야 만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음양합덕으로 인해 무한정 풍요로운 상태이므로 서로 빼앗는 마음도 생겨날 수 없어서 만나기만 하면 좋기만 한 것이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교의(敎義)에서는 서로가 감정을 다 없애고 상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덕을 베풀어 나가는 생활을 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설명을 전제로 하여 도통진경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위에서 설명한 종지의 내용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음양합덕으로 이루어진 무한히 풍요로운 세계에서 신인조화로 인해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신명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아주 투명하고 밝아서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없는 윤리도덕적 질서가 확고한 세계가 되며, 모든 상호간의 감정이 다 풀어져서 오직 서로를 동경하고 잘되게끔만 덕을 베풀어가는 그러한 세계이다. 이것은 진리로서의 도(道)가 온 천하에 두루 다 통해서 인간이 바라는 참되고 진실한 이상세계가 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이를 대순종지에서는 이름하여 도통진경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도(道)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특히 구천상제께서 내 놓으신 대순진리를 일컫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오직 상제의 권능으로서만이 가능한 천지공사이므로 대순종지를 표방한다는 것은 대순진리로서의 도(道)를 만 천하에 실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 전체적 내용이 대순종지 열여섯자에 담겨 있으므로 그 의미를 서로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즉 도통진경의 세계를 이루는 원 근본은 음양합덕에 있으며 이 때의 음양은 정음 정양이라야 된다. 그리고 음양합덕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인조화가 되고 따라서 해원상생이 됨으로써 이 세계는 화평(和平)한 도화낙원을 이루게 되니 이러한 이상세계를 일컬어 도통진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통진경의 종교적 교의라고 하면 상제의 천지공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신천지를 원 근본에서부터 이해하고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진리로서의 도(道)에 다 통하는 그러한 진경세상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Ⅲ. 도통진경(道通眞境)의 사상적 필요성

1. 현실세계의 부조리와 그 극복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사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상사회를 꿈꿔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한번도 인간이 바라는 진정한 이상사회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사상적 갈등과 대립의 양상만 가중시켜 온 듯하다. 사회란 인간이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모여사는 하나의 장

(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어느시대에건 존재하였었다. 크게 나누면 무형(無形)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주의(主義)와 유형(有形)의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주의(主義)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한 사상적 주범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회의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물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평등을 중요시 여기고 이때 사용하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강조한다. 이것은 오늘날 고도의 산업자본주의 사회를 등장시키고 부(富)를 추구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며 나아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상실의 문제를 대두시켰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천부적 인권을 소중히 여겨서 자유의 문제를 주장하며 이는 나아가 종교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대두시켰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권위의식의 팽배와 경제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므로 인간의 이성이 말살되는 폐단을 낳게 된다. 이상의 두가지 경향은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역사적으로 상호 지배하기 위해서 대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오늘날에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부조리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 극복의 방안은 또 어떻게 모색될 수 있을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이 바라는 진정한 이상사회란 어떠한 모습이고 그러한 사회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되기도 한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사회가 당면한 부조리(不條理)의 문제란 아무런 목적의식없이 순간순간의 욕구로서만 살아가는데 핵심이 있다. 모든 관계를 우연적으로 보며 일을 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근거나 의미도 없이 순간의 기분으로만 한다. 그래서 무분별한 소비풍조를 낳기도 하고 윤리도덕적인 질서를 마음대로 무시하기도 하며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한다. 자기 기분만을 중요시 여겨서 이유없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사회적 규범을 마음대로 어기게 된다. 이것은 모두 부조리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 궁극적 원인을 따져보면 다름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의 기분에 사로잡혀서 남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는 급기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원망을 사서 그 반대급부의 보복을 당하게

되는 순환고리를 뛰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법적 제제와 사회적 계도(啓導)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사회는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병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사회의 극단적인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전경』의 구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교법 1장1절)

여기서 재리라고 함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이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 남을 해치기를 서슴치 않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의 사회적 부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말초적인 감각에 치우치고 금권(金權)을 남용하는 현상과도 연관이 되며 모든 인간관계를 물질적 가치에 입각하여 행하고 있는 폐단과도 연결된다.

그리고 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또 다른 폐단을 낳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신세계의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다. 이는 다음의 전경구절이 대변해주고 있다.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교운 1장 9절)

즉 종교적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트렸다는 것은 정신적 근원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행위의 가치기준이 모호해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기 기분으로만 행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방황하게 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잃게 되니 급기야 파멸의 지경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순진리가 대두되는 필연성을 발견하게 되니 다름아닌 인류의 구원과 새로운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신계(神界)에서 진행된 구천상제에로의 하소연은 마침내 상제의 광구천하(廣救天下)의 역사를 단행하게 하였으며 이는 나아가 인류에게 이상사회의 꿈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바라는 진정한 이상사회의 모습은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에 입각해 볼 때 어떠한 것으로 이해되고 또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다음의 전경구절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하루는 김 형렬에게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後天仙境)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 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어 신명의 회산과 청령(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예시 17절)

윗 글에서 볼 때 인간이 바라는 진정한 이상사회의 모습이란 곧 '무극대운(無極大運)'의 어의(語義)속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무극(無極)이란 어떠한 극단(極端)도 없다는 말이니 앞서 이야기 한 정신적 가치의 숭배양상이나 물질적 가치에 대한 숭배의 태도 모두 하나의 극단이므로 그것을 종합 승화시킨 단계에서 맞이하는 사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즉 고도의 정신적 성숙의 경지와 물질적 풍요의 지점에서 서로가 만나서 융화된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정신문화를 대변하는 종교적 경지가 고도로 성숙되고 물질문화를 이끌어가는 과학문명이 또한 고도로 성숙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야말로 이상사회를 이루는 기본 요건이 된다. 이러한 사회를 달리 이름한다면 대순종지에서 볼 때 도통진경의 어의(語義)가 합당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물질적인 진리와 정신적인 진리도 모두 하나의 도(道)에 근원한 것이며 이것

이 두루 다 통하는 세계로서 도통진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욕구도 정화되어 해원상생으로 서로 관계하므로 어떠한 부조리적 현상도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욕구의 근원이 되는 환경적 요인도 음양합덕으로 베풀어지고 또한 윤리도덕적 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인조화가 이루어짐으로서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도통진경의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란 윗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천상제의 강세와 그 권능에 의한 삼계 개혁공사를 신앙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상제의 강세를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일심으로 실천수도하여 후천선경 또는 도통진경의 이상사회를 이끌어 내는 것은 오늘날 수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실천적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종교의 역사적 한계와 새로운 지평

도통진경의 교의가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제시되는 하나의 이상세계를 가리킨다면 그 세계의 이념은 또한 오늘날 모든 종교가 추구해 왔던 가치를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날 세계종교는 그 발생에 있어서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담고 전개되어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크게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로 나뉘고 같은 동양권 안에서도 열대(熱帶)와 한대(寒帶)의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각각 그 특징을 달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神)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도 서양에서는 인간을 초월한 신을 강조하는가 하면 동양 특히 고대 유교사상에서는 신과 인간의 조화(調和)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동양권 안에서도 열대지방에서 생겨난 인도불교는 보다 추상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 한대지방의 중국유교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면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특색은 서로의 문화적 교류로 인해 상충되는 면이 발견되고 나아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큰 시비거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동양에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 제기된 유교의 제사문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자기 문화에 익숙한 민족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심하게는 민족적인 학살과 전쟁으로 치닫게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가 주장하는 나름대로의 교리적 근거가 있기 마련인데 자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방식은 종교간의 대화의 문제에서도 서로 교통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 이것으로 인해 오늘날 종교간의 마찰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도 국제적인 관계 개선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전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고로 해 볼 때 잘 알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교법 3장 23절)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공사 3장 5절)

즉 모든 족속들은 자신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따라 다양한 종교도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종교사상은 다른 민족과의 교류에 있어서 상호 이해하지 못하는 사상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시비거리가 되어 민족간의 전쟁도 불사하게 되니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상적 장점들이 한덩어리로 융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도통진경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종교간의 마찰도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통합적 이념을 창출해 낸다. 그것은 기존의 종교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한계와 그것을 초극(超克)하는 통합적 이념으로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종교의 역사적 한계란 그 사상적 본질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추이에 따라 그릇되게 해석되거나 또는 사회적 폐단을 낳게 된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의 독선적 집단 의식을 생겨나게 하여서 서로 다른 종교와 부딪힐 때는 융합될 수 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러한 종교의 역사적 한계성을 언급한 구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상제께서 임인년 어느날 김 형렬과 함께 금산사(金山寺) 부근의 마을에 가서 계셨도다. 이 부근의 오동정(梧桐亭)에 살고 있던 김 경안(金京安)이란 사람이 기독교의 신약전서를 가지고 있었던 바 상제께서 어느날 김 형렬에게 신약전서 한권을 구하게 하시니라. 그는 이르신대로 그로부터 책을 빌려다 상제께 드렸더니 상제께서 그것을 불사르셨도다.(행록 1장 27절)

상제께서 임인년 四월에 정 남기를 따르게 하시고 금구군 수류면 원평에 있는 김 성보(金聖甫)의 집에 가서서 종도들과 함께 지내셨도다. 이때 김 형렬과 김보경이 찾아왔도다. 상제께서 보경에게 유 불 선(儒佛仙) 세 글자를 쓰게 하고 정좌하여 눈을 감고 글자 하나를 짚게 하시니 보경이 불자를 짚자 상제께서 기쁜 빛을 나타내시고 유자를 짚은 종도에게 유는 부유라고 알려주셨도다.(교운 1장 6절)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제는 十四일이요, 하제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위의 구절을 살펴볼 때 종교는 저마다의 시대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불·선을 언급하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종교적 욕구를 다 해소시켜 줄 수 없었던 한계성이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이 한계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원하는 바 모두를 성취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며 아직까지 어느 종교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통이 주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마음을 닦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도통을 주는 원만한 경지를 내 놓으셨으니 여기에 다양한 종교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세계의 종교적 새지평을 열어나가게 된 것이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종교적 이념의 새지평을 열기 위해서 그 종장(宗長)을 새로 임명하시기도 하였다.

또 어느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교(佛敎)의 종장(宗長)으로, 주 회암(朱晦庵)을 유교(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

(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고 하셨도다.
(교운 1장 65절)

본래 선도와 불도와 유도의 창시자는 노자와 석가와 공자로 대변할 수 있지만 상제의 천지공사는 그 문화의 정수를 뽑아서 한갈래로 만드는데 있으므로 새시대의 종교적 회통(會通)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물로 새로이 종장을 임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종교의 새로운 통합은 그 근원적인 일치성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도통진경의 사상은 이러한 종교의 근원이 하나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다음의 구절을 보면

옛적에 신성(神聖)이 입극(立極)하여 성·웅(聖雄)이 겸비해야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統制管掌)하였으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眞法)을 보지 못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원시반본(原始返本)이 되어 군사위(君師位)가 한 갈래로 되리라.(교법 3장 26절)

라고 하여 고대에 정치와 교화가 일치되었던 시대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만큼 종교도 분화되지 않고 원시적으로 단일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그 바탕이 달라지면서 종교도 분화되어 난립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도통진경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면서 종교적 분과도 하나로 통합되어 그 근본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모든 종교는 백성을 교화하고 가르치고자 탄생한 것이므로 그 근원적 진리성은 다를 수가 없다. 전경에 보면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人曰東學 都是教民化民 : 서쪽에 대성인이 있으니 가로되 서학이라 하고 동쪽에 대성인이 있으니 동학이라고 한다. 모두가 다 백성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이다.(행록5장38절)』 라고 하였듯이 비록 동·서의 지역적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로서의 도(道)는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도통진경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떠한 종교도 저마다의 진리성을 다 담고 있기 마련인데 지역적 경계에 구애받다 보니 종교적 대립이 유발되므로서 오늘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종교간의 화합과 나아가 근원적 진리로서 통일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구천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속에 도통

진경(道通眞境)의 교의(教義)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진리로서의 도를 두루 통한 것, 유도(儒道) 불도(佛道) 선도(仙道)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의 도(道)로 통하는 경지는 다름아닌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종교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하겠다.

IV. 이상세계(理想世界)로서의 도통진경(道通眞境)

도통진경이 가리키는 바는 종지가 완전히 실현된 하나의 전체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부분별로 나눈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것과 자연, 종교, 과학등의 다양한 측면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몇가지 주요항목을 정하여 그 항목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전경에는 이러한 도통진경의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대표적으로 나온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 (예시 81절)

위 구절을 참고해 볼 때 도통진경의 세계는 크게 세가지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새로운 인간의 출현과 단일화된 세계공간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로 무한히 펼쳐지는 물질적 풍요와 자연환경의 이상적 상태를 말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종교이념적인 측면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들 수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이상적(理想的) 인간과 세계일가(世界一家)의 시대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종교적 힘을 빌리고자 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죽음의 문제라든가 인간능력의 한계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인간은 종교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인(聖人)이 오셔서 그 문제의 해답을 내놓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극히 일부만이 종교적 진리를 체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적 한계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도통진경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소멸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윗글에서도 보았듯이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한다”고 하고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세계에 통달한다”고 한 것은 현재의 인간이 모든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통이 이루어진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정신적 갈등도 생겨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도 없으며 인체의 질병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통의 근본원인을 없앤 인간의 모습인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이 궁금해 하는 것은 뭐든지 생각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밝고 투명한 세계가 또 도통진경이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경지도 무한대로 발전해서 모든 종교적 진리를 꿰뚫고 시방세계에 통달할 수 있는 상태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존(人尊)’의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존이란 달리 말하면 후천에서의 “신인간(新人間)”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후천은 신인조화(神人調化)된 세상이므로 신(神)이면서 인간(人間)이고 인간(人間)이면서 신(神)인 존재가 생활해 나간다. 모든 것이 신명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신명의 조화를 인간이 마음대로 부러나가는 세상이 바로 도통진경이다. 그리하여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다 꿰뚫어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며 먼 거리도 단숨에 왕래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신명의 조화로 가능한 것이다.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56절)고 하였듯이

천존(天尊)과도 상대되고 지존(地尊)과도 상대되는 인존의 의미는 인간에게 하나의 신격(神格)을 부여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신격(神格)을 지닌 인간이 후천에 이르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곧 도통진경의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인존(人尊)의 신인간(新人間)이 살아가는 세계는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에 서로 단절된 세계가 될 수 없다. 모두가 서로 지혜가 통해져 있으므로 마치 한 집안 사람을 대하듯이 전 세계 또는 천하가 한 집안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려면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생겨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경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 해결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鷄龍山) 건국의 비결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 그자가 다시 「언어(言語)가 같지 아니하니 어찌 하오리까.」 고 묻기에 「언어도 장차 통일되리라」 고 다시 대답하셨도다.(교범 3장 4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예시 81절)

즉 동·서양이 통일된다 함은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천하가 한 집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는 장차 언어도 통일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도통진경의 전체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에는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그 세계의 신비로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관계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상대국의 이익을 무시하는 현상은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며 마치 한 가족이 모여서 지내듯이 전 세계가 화평(和平)한 하나의 일가(一家)를 이루게 될 것이다. 거리상으로도 멀고 가까운 것이 없어지므로 마음대로 왕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이 도통진경에 있어서는 극치에 이르러 인간의 생활에 무한한 편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전경에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용력술을 배우지 말지어다. 기차와 운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축지술을 배우지 말라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리라.(예시 75절)

즉 운거(雲車)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한다고 하였으니 이 때의 운거는 신명의 조화가 들어 있는 교통수단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후천 즉 도통진경의 세계에 있어서는 신인조화된 인간의 새로운 탄생을 말하고 있고 나아가 오늘날과 같은 국가간의 지역적 경계가 없어진 전체 세계의 통일적 모습을 담고 있어 가히 이상세계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2. 물질적 풍요와 자연환경의 이상세계

도통진경의 세계에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환경에 있어서도 그 이상적(理想的)인 여건을 볼 수 있다. 도(道)를 진리로서 이해할 때 이 도(道)는 모든 분야에 두루 통해있으며 특히 인간이 누리는 물질적인 요건에서나 자연의 변화에 있어서도 도(道)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도(道)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라면 그것이 통하지 않아서 겪는 불편이나 피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주변을 구성하는 환경으로서 물질적인 여건과 자연환경을 들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인간을 둘러싼 물질적인 여건이란 인간이 개발한 편리한 과학기계들이나 그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 또는 에너지등을 말한다. 오늘날 인간이 누리고 있는 편리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 전화기와 같은 통신수단, 전자제품등은 인간생활의 편리를 위해 오늘날 없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부류들은 시간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도 보다 나은 제품을 위해 연구중이다. 하지만 도통진경의 세계는 바로 그러한 과학기계에 있어서도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며 더 이상의 지속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간이 하나의 기계를 애써서 연구한다는

것은 모두 그 분야에 완전히 통(通)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는 것이며 만일 어느 분야든지 거기에 완전히 통(通)해버린 경지라면 그 생산된 제품도 완전하고 극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연구개발을 하는 이상 인간을 둘러싼 오늘날의 과학문명은 완전한 것이 못되며 도통진경을 맞이하여 비로소 그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수단에 있어서 과거에는 먼거리를 인간이 직접 걸어서 왕복하다가 말과 같은 동물을 이용하였으며, 자동차가 발명되므로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동차도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점점 빠르고 편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현대에는 이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결코 편리함이나 신속성에 있어서 극치의 모습을 보인다고는 할 수 없으며 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그 모습이 바뀌어야만 한다. 이것은 또한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상적인 형태이다. 통신수단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인간이 먼 거리를 직접 가서 소식을 전달하였지만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힘들이지 않고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화기 그 자체도 계속 개발이 되어져서 유선전화기가 무선전화기로 변하고 또 휴대폰으로 발전되었으며, 휴대폰도 그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쪽으로 개발이 되어왔다. 그리고 일정한 좁은 지역 안에서만 사용가능하던 것이 점점 그 지역이 확대되어 한 국가내에서 사용가능해지고 나아가서 전세계 어디에서든지 사용가능한 쪽으로 개발되어져 나왔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의 상태에서 완전한 모습이 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전화기 자체는 아예 무게가 없는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지역적 범위도 지구내에서의 한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범위로 확산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는 아직 도통(道通)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요원하기만 하겠지만 앞으로 도통이 이루어진 도통진경의 이상세계에서는 그 진정한 모습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문명의 극치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고로 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내가 나의 말을 좃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좃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 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시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견어야 옳으나.」 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 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딴 것이니라.」 고 말 씌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공사 1장 35절)

용력술을 배우지 말지어다. 기차와 윤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축지술을 배우지 말라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라.(예시 75절)

윗 글을 살펴볼 때 서양에서 주로 개발되어져 나온 과학문명은 모두 천국(天國) 즉 신(神)의 세계에서 의 원형(原型)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완전한 모습은 바로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도통진경은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의 시대이기도 하므로 곧 신(神)의 문명이 창출되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명의 극치이며 과학의 완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이 누리는 편의성은 극대화되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차와 윤선 운거(雲車)와 같은 것이 나오게 됨은 인간이 스스로 힘들여 익히고자 하는 술수를 대신하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과학문명이 베풀어 줄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인간의 물질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또 한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의식주(衣食住)에 해당하는 제반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도통진경의 세계에서는 무한정 풍요로운 혜택이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세계는 음양합덕(陰陽合德)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계이므로 이는 인간에게 무한한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세계의 구성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의 전경구절을 참고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주루 보각(珠樓寶閣) 십만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 (교법3장 44절)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욕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데가 없으리라.(예시 82절)

즉 도통진경에서는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는 세상이며 주루보각 십만간으로 모두의 집이 마련되며 계절의 변화에 상관없이 의식(衣食)이 풍족한 세상이다. 따라서 이때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물질의 소유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일이 없으며 시기와 질투가 없는 화평한 세상이 건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있어서도 도통진경에서는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이상적인 기후와 온화한 여건이 조성되는 세계가 또한 도통진경이다. 오늘날의 자연현상은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간에게 하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도통진경이 되면 이러한 자연의 모습도 인간에게 가장 온화한 현상으로 펼쳐져야만 하는 것을 이치로서 알 수 있다. 즉 전경에 보면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절)

라고 한 것처럼 도통진경에서는 수·화·풍(水火風)의 삼재를 겪지 않는 아주 온화한 자연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기후가 펼쳐지고 자연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세계이며 사시사철이 봄과 같이 따사로운 자연환경을 누리고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地上仙境)이다. 이러한 세계를 이루고 또한 인간이 누려나가는 세상을 도통진경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물질적 환경의 풍요로움과 또 자연환경의 이상적인 형태는 구천상제께서 대순(大巡)하신 진리로서 이루어지는 도통진경의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라 하겠다.

3. 종교와 이념의 통일세계

도통진경(道通眞境)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극복이 된 세계를 말하며 나아가 종교와 이념에 대해서도 오늘날처럼 혼란스럽지 않은 통일된 체계를 구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서 살펴본 도통진경의 사상적 필요성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종교의 시대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종교간의 대립이 인류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국가간의 이념 대립도 국제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통일적인 양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세계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여기에 도통진경의 세계는 인류에게 있어서 종교와 이념의 통일적인 모습도 안겨줄 것이 기대된다. 그것은 종교도 하나의 도(道)가 있으며 여러 가지 이념도 그 나름대로의 도(道)가 있기 때문에 도통진경이 이루어지면 결국 종교와 이념에 있어서도 하나의 통일적인 모습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동양의 유(儒)·불(佛)·선(仙)과 서양의 기독교 사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념적인 것으로는 물질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과 정신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종교와 이념은 모두가 제각각의 가치를 지니면서도 역사적으로 서로 대립되고 통일되지 못한 한계를 보여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상호 불이해(不理解)와 반목 투쟁은 전쟁도 불사하는 양상으로 치달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일에 대해 상제께서는 「훼동도자(毀東道者)는 무동거지로(無東去之路)하고 훼서도자(毀西道者)는 무서거지로(無西去之路)하니라」(교법 2장 30절)고 하여 동쪽으로 가는 길을 훼방하는 자는 동쪽으로 가는 길이 없고 서쪽으로 가는 길을 훼방하는 자는 서쪽으로 가는 길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즉 모든 종교와 이념은 그 근본을 파고들면 하나의 도(道)로

써 통할 수 있는 것인데 당장에 나누어진 교리와 이법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없앨려고 한다면 결국 어떠한 통일과 화합도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말 씀이다. 여기에 도통진경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그 통일적인 종교사상과 이념이 지배하며 인간세상을 이끌어 갈 새로운 진리가 도출되어야 하다. 그것은 종교를 통일하고 이념간에 대립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서의 도(道)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통일적 종교와 이념의 형태는 어떠한 것인가. 이는 다음의 전경구절을 통해 볼 때 잘 알 수 있다.

신도(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최 풍헌(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송 구봉(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불·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 아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73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말씀하시길

「동학 신자는 최 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 고 하셨도다.(예시 79절)

윗 글에서 보면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고 판이 넓어진 세상이다. 따라서 일도 복잡해져서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분쟁으로서 종교간 또는 이념간의 대립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상제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그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절대사상으로서 신도(神道)의 진리를 내놓으셨으며 이는 오늘날의 어떤 사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신묘불측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무위(無爲)화(化)의 작용으로 세계를 이루고 또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도통진경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종교적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도 그 존

재양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종교간의 대립을 일으키는 주요한 항목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도통진경에서는 말끔히 해결될 수 있다. 즉 윗글의 전경구절에서 보듯이 누구나 기다리는 한 사람의 출현이 있게 되면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은 모두 하나로 귀일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신 구천상제께서 모든 종교인이 추앙하는 궁극자이며 절대자 하느님임을 자임(自任)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행록 5장 25절)고 하시면서 장차 출세할 절대자 하느님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로서 모든 종교는 한 분의 절대자를 통해서 하나로 귀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통일되어서 인류는 대립이 없는 영원한 평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대순종지 가운데 도통진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도통진경은 대순종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그리고 해원상생의 내용이 하나의 전체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음양합덕이 이루어짐으로써 신인조화가 되고 또 해원상생이 되어서 크게 도통진경을 이룬다는 것으로 각각의 개념을 서로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도통진경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그 개념을 설정하고 그리고 오늘날의 실정에 비추어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나아가 그것이 하나의 전체세계를 이루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닐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도통진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순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세계관이며 우

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베풀어지는 후천세계는 모두가 도통(道通)을 한 세상으로서 어떤 이치나 진리에도 막힘이 없이 두루 다 통해서 살아간다. 그리하여 한없이 밝고 투명한 세상에서 무한한 풍요와 혜택을 누리면서 인간 극치의 행복을 구가하는 모습이 바로 도통진경인 것이다.

역대 모든 종교가 하나의 이상세계를 제시하면서 역사를 거듭해 왔지만 단 한번도 그러한 세계를 펼쳐보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의 한계와 수명을 드러내는 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대순사상에서 강조하는 도통진경(道通眞境)은 구천상제의 역사적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근거로 하여 우리 인간이 실재로 맞이하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어떤 종교에서도 해낼 수 없었던 유일무이한 이상을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세계는 모든 종교의 목적을 합친 것 이상(以上)으로 화려한 모습을 지니는 것이므로 오직 구천상제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세계이다. 무엇보다도 구천상제의 강림(降臨)을 신앙하고 그 역사를 일심으로 봉행(奉行)하는 가운데 우리 인류는 무한한 선경(仙境)의 낙원(樂園)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